



## 2024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I. 들어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발발과 반중(反中)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에 따른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 그리고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미-중 패권 갈등까지 더해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국제 질서 붕괴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이슈는 세계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년 대비 0.2%p 낮아진 2.8%로 전망하였다. 미국(1.5%), EU(1.1%), 일본(1.0%), 러시아(1.0%) 등은 1% 대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중국도 작년보다 낮은 4.5% 성장이 예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고물가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1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 가고 있는 자동차와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달성한 반도체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1월 수출이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18%)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수지 또한 3억 불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기 극복 노력이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수출 주도의 경제·산업 구조로 인해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에게 있어 FTA가 갖는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FTA 시대로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지면을 빌어 2024년 관세청이 FTA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

2023년은 국제관세협력국이 관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개최와 인도·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수입자 원산지 검증에서 수출자 원산지 검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역대 최다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세 행정 분야의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K-관세 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한 획을 그은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KCW 2023 서울 공동선언문 발표(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무엇보다도 먼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관세 분야 ‘다보스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Korea Customs Week 2023’ 행사를 기획·개최하여 전 세계 78개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공통의 관심사와 현안을 공유하는 장(場)을 마련하였고, 40여 차례에 달하는 고위급 양자회담을 비롯해 디지털 세관 등 8개 핵심 이슈를 다룬 정책 세미나, AI 통관 시스템 등 최신 관세 기술

전시회, 해외 관세 당국과 우리 기업 간 G2B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통관·무역 원활화를 위한 「서울 선언문」과 국제 마약 단속 공조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역량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전국 7개 세관에 ‘수출확대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화 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532개 기업이 FTA를 신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숙원 사업이던 인도·베트남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이 모두 완료되어 종이 C/O 유통에 따른 통관 애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나마 해상 환적 후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 화물에 대한 한-미 FTA 직접 운송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였다.

원산지 검증 분야에서는 기존의 수입자 검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산 원산지 가장(후회) 수출자나 고위험 해외 공급자에 대한 위험 정보 분석 및 검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한-EU FTA를 적용해 EU로 수출하는 의류(안감)에 대한 원산지 기준 해석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 의류 수출 업체가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튀르키예·EU 등 수출 검증 요청 상위 4개 협정에 대해 체약 상대국의 수출 검증 요청 사유·품목·통계는 물론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최초

로 공개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위험 관리는 물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최대 통관 분쟁국 중 하나인 인도 관세관을 외교부 정식 직제로 편성하여 인도 관세 당국과의 의제 설정 및 협상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7년 만의 한-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고위급 협력을 통한 통관 분쟁 해소 노력과 더불어 재외 공간, KOTRA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외 통관 분쟁 146건을 적기에 해소하여 543억 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III. 2024년도 FTA 및 국제 협력 분야 추진 방향

작년 하반기 관세청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관세 행정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선진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개도국을 포함해 과거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말 그대로 국제 사회의 수혜자에서 공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관세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제관세협력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FTA 및 국제 협력 분야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

먼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sup>1)</sup>의 창설과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거대 신흥 시장인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웬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AfCFTA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FTA 체결 및 이행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 협정 체결,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고, 메네 사무총장도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AfCFTA 이행 가속화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이 매

1) 아프리카연합(AU) 5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最多)국 역내경제협력체로 2000년 5월 발효되어 2021년 1월 공식 개시되었으며 향후 5년간 최대 90% 관세 철폐가 목표.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3.4조 달러의 GDP, 저렴한 노동력과 투자 비용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부상



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청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추진 중인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AfCFTA 사무국 및 아프리카 주요 거점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이들 국가의 FTA 활용 기반을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과 상호 연계 되도록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나라로,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끌어 가는 나라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관세청도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 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 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외에 KOICA 등 국내 기관은 물론 IDB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다각화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세관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관세협력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인재개발원 등 관세청 ODA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전략적 ODA 사업 추진 기구를 신설하여 우리 청 대표 브랜드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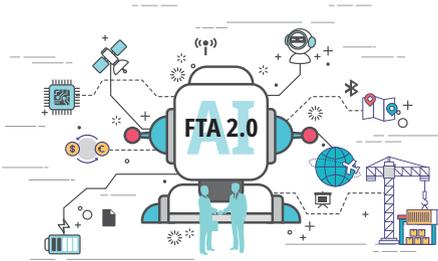
2005년에 이어 2025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sup>2)</sup>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청도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국으로서 정기 회의와 회원국 워크숍, Customs-Business Dialogue 등 주요 행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최신 국제 관세 동향과 우리 청 중점 추진 정책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디지털세관 구축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APEC 기금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세계관세기구(WCO)와의 협업을 통해 e-C/O 교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개정안을 WCO 상임위 및 총회에 상정하는 등 K-관세 행정 국제 표준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무역 규범을 선도

2)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1993년부터 매년 11월 아태 지역 21개국 정상회의 개최, 우리 청은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에 속해 있으며 APEC 개최국이 SCCP의 당연직 의장을 맡게 됨

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협력 인력의 체계적인 경력 및 역량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WCO 주요 회의체 의장이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2. 세계를 변화시키는 FTA 2.0 도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는 우리나라 FTA 체결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2004년 칠레와의 첫 협정 발효 이후 세계 FTA 환경 변화를 선도해 온 정부 부처 유일의 FTA 집행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다음 단계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FTA 2.0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FTA 제도, 집행, 검증, 협상, 기업 지원 등 분야별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세청 FTA 2.0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20년간 FTA를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세관의 영역을 확장 및 발전시켜 온 우리의 경험을 주요 교역국들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각급 기관 및 개별 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FTA 관련 기초 정보와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품목 정보를 빅데이터나 AI 분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하고, 종이 C/O나 BOM 등 비정형화된 자료까지 원산지 요건 확인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AI 분석 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생성형 AI 기술 활용 기반 구축에도 힘을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개 협정과 관련한 143개 고시 및 지침을 협정별·유형별로 분류하여 현행화하거나 통폐합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FTA 관련 각종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킬러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한편, 원산지 사전 심사 규정을 개정해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특혜 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모든 협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FTA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간 수출 지원 목적으로 양적 확대에 다소 치중해 온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당 기업 및 품목에 대한 수출 검증 및 현지 확인 결과와 연계한 위험 지표를 개발하여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관세청이 인정한 관세사가 자율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연장·갱신 심사 시 혜택을 제공하는 가치 ‘성실자율확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



적 성장에서 품질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검증 정보나 기법은 개별 기업의 민감한 영업 기밀을 포함하고 있거나 계약 상대국의 보복 검증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청의 원산지 검증 적발 사례를 유형화하고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내 수출입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계약 상대국들과도 공동 연수 프로그램 개발, 검증 가이드라인 상호인정협약 체결, 간접 검증 후 직접 검증 시 결과 브리핑 등 관세 당국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협정 배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분야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3. 기업의 신통상 수출 전략 지원

글로벌 기후·환경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통상 규범 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폐배터리, 폐촉매 등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한 품목 분류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방안을 지원하고, 분해된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재제조 물품(Remufacture)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간소화, 신품과의 동일성 여부 입증이나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중고 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결정 기준 개정 협상 추진 등을 통해 친환경·재생 가능 자원의 수출 촉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수출 첫걸음 지원’ 및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통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는 수입 검증에만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제도를 수출 검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 관세 당국과의 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통관 분쟁 다발국과 관세 당국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관 파견 요청이 많은 인도(첸나이), 베트남(하노이)을 포함해 교역량과 진출 기업이 많은 국가들에 관세관이 우선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시급성이 높은 중요 통관 애로의 경우에는 세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지원 팀 파견을 통해 분쟁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4. 무역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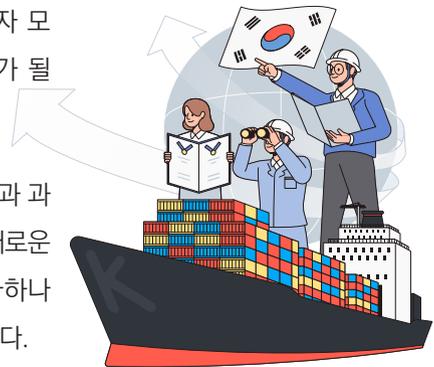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합의 등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정책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도 이들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세 행정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추적, 환급 소요량 계산,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 노하우 등 우리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계산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수술용 로봇, 공작 기계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친환경 산업 육성 등 국내외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검증 테마를 발굴하여 기획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EU 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련해 원산지 조사 및 벌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교역국이 체결한 제3자 FTA를 악용한 우회 수입 위험 분석 및 원산지 검증을 통해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도 노력할 생각이다.

현지 진출 기업의 통관 분쟁 해소 및 유의 사항 공유 등을 위해 상대국 세관, KOTRA 등과 합동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업종별 최신 관세 동향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중소기업들이 국내외 관세 무역 동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정세나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도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도전해 코로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수출입 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관세청도 FTA 2.0을 비롯해 모든 정책과 과제를 국제 협력 및 관세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IV. 맺음말